

부모의 공동양육,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행복감과의 관계 연구

유경훈¹, 정미애^{2*}

¹송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²성신여대 유아교육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o-parenting and Efficacy and Happiness of Children

Kyoung-Hoon Lew¹, Mi-Ae Jeong^{2*}

¹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²Early Childhood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공동양육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유아패널 7차년도(2014) 자료 가운데 1149가구를 대상으로 spss2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의 공동양육, 양육효능감, 유아의 행복감 및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에는 부분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행복감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행복감에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부모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그 의미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 and influence between parents' co-parenting and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happines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2 program for 1149 households among the 7th (2014) data of the Korean Infant Panel. There was a partial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co-parenting, parenting efficacy, children's happiness and parents' perception of children's happiness. The mother's co-parenting and parenting efficacy were significant in the infant's sense of happiness. The father's co-parenting and parenting efficacy were partially significant in the happiness of children. These results suggest the meaning of the effects of parental co-parenting and parenting efficacy on the subjective happiness of infants and the happiness of children perceived by parents.

Keywords : Mother and Father, Parents' Co-Parenting, Parenting Efficacy, Child' Subjective Happiness, Korean Children's Panel

1. 서론

부모의 양육과 돌봄은 양과 질에 있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가 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서로의

책임과 가치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양육이란 부모의 사회 정서적 상태, 부부관계, 배우자의 양육 행동과 사회 인구학적 맥락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동양육이란 두 명의 부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양육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조율하는 것을 의미한다

*Corresponding Author : Mi-Ae Jeong(Sungshin Women's Univ.)

email: 14sunday@hanmail.net

Received October 7, 2021

Accepted February 4, 2022

Revised November 1,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2

[1,2]. 자녀라는 공동의 대상을 통해 일어나는 공동양육은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된다. 따라서 양육자로서 공동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서로의 책임과 가치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양육에 관한 연구는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문화적 인식에 의해 주로 여성의 역할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 양육의 책임과 중요성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여[3,4] 부모가 협력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공동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대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핵가족화로 인해 아버지도 자녀양육의 적극적 개입과 상호작용하는 친밀한 양육자로서 어머니와 동등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동양육이 부모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부모의 역할로 연결되는 방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부부가 되는 것과는 별개의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1]. 이에따라 부모역할을 하는 양육자는 가족체계로 양육을 바라보며 상호작용해야 한다. 양육의 상호작용적인 특성상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관찰하며 탐색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육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 가운데 양육효능감은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되어오고 있다. 양육자들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부모의 역할 수행에 있어 스스로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정도를 양육효능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5].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6].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의견을 나누는 특징이 있다. 또한 존중과 함께 문제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는데 일관성을 지닌다. 따라서 양육행동에 대하여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양육목표와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동양육자 간의 어느 정도의 공동된 목표와 지향점이 있어야 한다.

반면 의견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경우에 힘들어지며 서로 간의 지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양육행동에 방해가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다[4,7].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 때 유아의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8]는 양육자 간의 공동양육 참여감이 낮거나 견해가 달라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양육자의 양육효능감은 떨어진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능감은 항상 일정하지 않으며 양육과정에서의 맥락과 과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양육

신념과 구분하여 정의된다[9]. 양육에 대해 유능한 부모가 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0]를 통해 검증되어 왔지만, 자녀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공동양육을 인식하고 협력하는 정도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양육의 질과 양에 따라 가정과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다[11].

우리나라 유아들은 다른 나라의 유아에 비해 평균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낮다는 연구들을 볼 수 있다 [12]. 유아의 행복도가 주변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유아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정환경임을 추측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8]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긍정성의 관련연구[13]는 양육자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양육효능감은 양육자들의 가치관과 성격 정서, 가치관 등이 반영되며 가족의 구성원과 그들 간의 관계와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주요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유아의 행복감은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부모가 보는 자녀의 전반적인 행복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14]. 행복이라는 단어가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기질과 자아특성 등의 개인적인 상태와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감정적 상호작용, 또래와의 대인관계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의미이므로 유아가 느끼는 행복의 정의나 의미는 한가지로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이란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기쁜 상태를 말하며 이는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인 요인으로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주관적 견해로 정의한다[15]. 부모가 보는 자녀의 행복감은 유아가 평소에 얼마나 몰입하여 놀이하며 미소 짓고 흐뭇해하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양육자의 판단에 의한 행복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모가 보는 자녀의 평소 모습은 어떠한지 질문을 통한 응답으로 자녀의 행복감을 살펴볼 수 있다 [16].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과 가까운 양육자에 의해 판단되는 행복감에도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유아의 두 행복감을 함께 비교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행복감이 높은 유아는 놀이에 몰입하며 만족감을 느끼

며 새로운 일에 불안함이 있더라도 용기있게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17,18]. 또한 폭력적인 문제행동을 보이는 빈도가 낮고 친사회적 행동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과 부모가 평상시 보는 자녀의 행복감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행복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효능감과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10,20],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연구[21],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과 부부갈등과 우울이 자녀의 공격행동과의 관계[20]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과 관련하여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부모가 보는 행복감과의 연구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연구는 미비하며 그 영향에 대해서 검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동양육, 부모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행복감과의 관계를 통해 어머니,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공동양육 및 양육효능감,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의 공동양육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한국유아패널의 7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유아패널에서 2008년 출생한 신생아 패널로 2014년에 수집된 만 6세 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사례 수 가운데 성실한 답변 1149가구를 최종 분석하였다. 그 대상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은 30~39세가 75.6%, 40~49세가 22.3%순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은 30~39세가 52.4%, 40~49세가 4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유아의 성별은 2008년 생으로 남아가 51.7%, 여아가 48.3%이다. 어머니의 미취업 상태가 57%, 취업 및 학업 중인 상태가 43%이며, 아버지의 취업 및 학업 중인 상태가 95.6%, 미취업 상태가 4.4%로서 어머니의 취업 및 학업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background

		N	%
child' sex	boy	594	51.7
	girl	555	48.3
mother age	50-	4	.4
	40-49	257	22.3
	30-39	874	75.6
	29-	20	1.7
father age	50-	16	1.4
	40-49	529	45.9
	30-39	605	52.4
	29-	5	.5
mother's job	at work	463	40.1
	studying	7	.6
	work and study	27	2.3
	unemployed	647	57
father's job	at work	1088	94.2
	studying	2	.2
	work and study	14	1.2
	unemployed	50	4.4
total		1149	100

2.2 연구도구

2.2.1 공동양육

부모 공동양육을 측정하기 위해 McHale의 부모 공동양육 척도(Co-parenting Scale)를 한국유아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부모의 공동양육을 측정하였다[22]. 공동양육은 총 16문항으로 4개의 하위영역인 '가족통합' 7문항, '비난' 3문항, '갈등' 2문항, '훈육' 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배우자와 아동이 함께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11문항)과 배우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아동과 함께 있는 상황(5문항)으로 나누어 질문하도록 지시문이 구성되어 있다. 가족통합과 훈육에 대한 11문항은 그대로 채점하였고, 비난과 갈등 5문항은 역채점하여 분석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양육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 아버지의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2.2.2 양육효능감

Gibaud-Wallston과 Wandersman의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Of Competence scale)를 신숙재가 번안한 내용을 참고하였다[9,23]. 양육효능감은 '나는 내가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부모 유능감 9문항,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

이다' 등의 부모 불안감 4문항, 기타 3문항의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감 항목과 부정문으로 된 2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부모의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2.2.3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

Lyubomirsky와 Lepper의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를 한국유아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4].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은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산데, ○○도 그러니?' 등 4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56로 나타났다.

2.2.4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

부모의 질문지 문항에 '어머니(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이의 평소모습(행복도)은 어떠합니까?'에 대한 1문항으로 제시되었으며, 1-7점 척도로 이루어졌다[16].

2.3 자료분석

본 연구는 한국유아패널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공동양육과 부모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고, 부모의 공동양육,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부모의 공동양육 및 양육효능감,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

부모의 공동양육 및 양육효능감,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어머니의 공동양육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r=.486, p<.001$).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r=.051, p>.05$), 어머니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367, p<.001$).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과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은 상관이 없었으나($r=.031, p>.05$), 어머니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415, p<.001$). 어머니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과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r=.064, p<.05$).

Table 2. Mother's Correlation for each factor

	1	2	3	4
1	1			
2	.486***	1		
3	.051	.031	1	
4	.367***	.415***	.064*	1

*** $p<.001$, * $p<.05$

1.Mother Coparenting 2.Mother Parenting Efficacy 3.Subjective Happiness 4.Mother's child Happiness

Table 3에서는 아버지의 공동양육 및 양육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r=.578, p<.001$),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010, p>.05$). 아버지의 공동양육과 아버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아버지의 공동양육이 높으면 자녀를 행복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r=.352, p<.001$). 또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나($r=.034, p>.05$), 아버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408, p<.001$).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아버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017, p>.05$).

Table 3. Father's Correlation for each factor

	1	2	3	4
1	1			
2	.578***	1		
3	.010	.034	1	
4	.352***	.408***	.017	1

*** $p<.001$

1.father Coparenting 2.Father Parenting Efficacy 3.Subjective Happiness 4.Father's child Happiness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어머니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과는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 아버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아버지가 보는

유아의 행복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의 공동양육, 양육효능감, 유아의 행복감에는 부분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부모의 공동양육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3.2.1 어머니의 공동양육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4에서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1.512, p>.05$). 반면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은 어머니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행복하게 보는 데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F=150.221, p<.001$).

Table 4. Influence on the mother's coparenting and mother's parenting efficacy on child's happiness

	B	β	t	R^2	F
constant	13.647		24.147		
1					
mother coparenting	.008	.047	1.383	.003	1.512
parenting efficacy	.003	.008	.248		
2					
constant	2.033		9.355		
mother coparenting	.016	.216	7.174	.208	150.221***
parenting efficacy	.042	.310	10.300		

*** $p<.001$

1. Child' Subjective Happiness 2.Mother's child Happiness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3.2.2 아버지의 공동양육 및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에서 아버지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F=.761, p>.05$). 한편 아버지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아버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31.303, p<.001$).

Table 5. Influence on the Father's coparenting and Father's parenting efficacy on child's happiness

	B	β	t	R^2	F
constant	14.047		29.478		
1					
father coparenting	-.003	-.014	-.400	.001	.761
parenting efficacy	.011	.043	1.184		
2					
constant	2.780		14.689		
father coparenting	.013	.175	5.351	.186	131.303***
parenting efficacy	.036	.307	9.393		

*** $p<.001$

1. Child' Subjective Happiness 2..Father's child Happiness

결과를 요약하면, 아버지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으나, 아버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유아의 행복감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행복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각각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어머니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25]에서와 같이 부모의 공동양육은 자녀에게 중요한 교육적 환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신체, 언어, 정서와 인지, 사회성 발달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유아

의 주관적인 행복감과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의 합이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26-2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머니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에는 상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공동양육이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면서 가족 통솔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공동양육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양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며 지지하는 긍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29]. 부모의 공동양육이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으로 서로 지지하고 애정적인 공동양육이 이루어질 때 부부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지고 이에 긍정적 영향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4,11].

둘째, 부모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어머니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행복감이 가정환경과 상황에 따라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 긍정적인 감정, 정서적 상태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16,30].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영향으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덜 받게 되면 양육효능감도 높아지게 된다는 선행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

아버지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에는 영향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14,16]. 따라서 아버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은 아버지의 양육환경에서 오는 만족감에서 비롯한 것이며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종합하면 부모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에는 부분적으로만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부모가 보는 자녀의 행복감이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부모가 함께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으로, 첫째, 공동양육이라는 관점을 아버지와 어머니만으로 대상을 축소한 점이다. 최근들어 부부 이외에도 양육에 참여하는 양육자들이 다

양해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양육자들의 공동양육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동양육이라는 개념의 재정립과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부갈등 및 스트레스 요인과 부모의 정서와 유아의 정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등의 변인들이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원인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과 유아의 주관적인 행복감 간의 상관에 대하여도 왜곡되거나 과장된 결과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아와 부모와의 관점의 차이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Feinberg, M. E.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Vol.3, No.2, pp.95-131. 2003.
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302_01
- [2] Van Egeren, L. A., & Hawkins, D. P. Coming to Terms With Coparenting: Implications of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Vol.11, No.3, 165-178, 2004.
<https://doi.org/10.1023/B:JADE.0000035625.74672.0b>
- [3] Y.H.Choi, & H.J.Moon,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Spouse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Infant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20, No.6, pp.407-424, 2016.
<http://www.childkorea.or.kr>
- [4] Y.J.Yang, & H.S.Doh. Pathways from Marital Conflict, Coparenting, and Parenting Stress to Mothers'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40, No.3, pp.39-51,2019.
<https://doi.org/10.5723/kjcs.2019.40.3.39>
- [5]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y Review*, Vol. 84, pp.191-215. 1997.
- [6] S.H.Kim,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on Young Children's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5, No.4, pp.191-209. 2005.
- [7] Mchale, J. P., Overt and covert coparenting processes in the family. *Family process*, Vol.36, No.2, pp.183-201, 1997.
<https://doi.org/10.1111/j.1545-5300.1997.00183.x>
- [8] Y.W. Kang, N.S. Cho, A Study o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Early Children's Stress, Happiness and

- Creativit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9, No. 4, 139-158. 2012.
- [9]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1978.
- [10] M.O.Lee, H.J. Jun,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moderating effects of co-parenting,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Vol.3, No.3, pp.97-116, 2018.
- [11] J.W. Lee, J.E. Choi, & H.Y.Kim, Characterizing the Types of Multidimensional Coparenting: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motion Regulation Ability of School-Age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41, No.6, pp.95-110, 2020. <https://doi.org/10.5723/kjcs.2020.41.6.95>
- [12] J.I.Park, C.U.Park, S.H.Jung, Collection of Korean Child Well-Being Index and Its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Yonsei University, Vol.44, No.2, pp.121-154, 2010.
- [13] S.K. Jang J.H. Lee, Young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ccording to Fa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3, No.2, pp.287-309, 2008.
- [14] G.S.Lee, Exploring Variables Influencing the Happines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4, No.1, pp.305-324, 2017. <http://dx.doi.org/10.22155/JFECE.24.1.305.324>
- [15] H.L.Yim, S.H.Kim, & I.J.Kim,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Family-School and Children's Happiness - Focused on Differences by the Level of Schoo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70, No.2, pp.145-170, 2018. <https://doi.org/10.20970/kasw.2018.70.2.006>
- [16] J.I.Kim,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s Feeling of Happiness, Mother's Feeling of Happiness, Parenting Behaviors, and the Elements of Familial Environment,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109, pp. 53-77, 2018. <https://doi.org/10.37918/kce.2018.03.109.53>
- [17] M.K.Lee, Ideas for implementing pursuit of happiness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s,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Vol.8, No.1, pp.165-181, 2009.
- [18] S.S.Kim, The meaning of happiness as understood and articulated by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33, No.3, pp.287-304, 2013. <https://doi.org/10.18023/kiecte.2013.33.3.016>
- [19] J.E. Park. Correlation between Happiness and Prosocial Behavior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21, No.5, pp.177-196, 2017.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46383>
- [20] S.M. Lee, C.S. Park, & E.H. Su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bjective Well-being, Marital Conflict, Depression and Preschooler's Aggressive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5(2), 237-257, 2021. <https://doi.org/10.17286/kjep.2021.35.2.01>
- [21] H.J. Park,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on the Happiness of Children*,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Christian University, pp.3-5, 2019.
- [22] Mchale, J. P., Overt and covert coparenting processes in the family. *Family process*, Vol.36, No.2, pp.183-201, 1997.
- [23] S.J.Shin, M.J. Chung,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19, No.1, pp.27-421, 1998.
- [24] Lyubomirsky, S., & Lepper, H. S.,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46, No.2, pp.137-155, 1999.
- [25] S.H.Lim, B.M.Lee, Life of Coparenting: Focused on Parents with Infants and toddle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7, No.3, pp.353-38, 2020. <http://dx.doi.org/10.21509/KJYS.2020.03.27.3.353>
- [26] E.O.Jun. & N.Y.Choi, Mother's Happiness, Parenting Efficacy, and Preschooler's Happiness: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82, pp.103-126, 2013.
- [27] Fagan, J., & Lee, Y. Longitudinal associations among fathers' perception of coparenting, partner relationship quality, and paternal stress during early childhood. *Family Process*, Vol.53, No.1, pp. 80-96, 2014. <https://doi.org/10.1111/famp.12055>
- [28] Merrifield, K. A., & Gamble, W. C. Associations among marital qualities, supportive and undermining coparenting, and parenting self-efficacy: Testing spillover and stressbuffering processe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34, No.4, pp.510-533, 2013. <https://doi.org/10.1177/0192513X12445561>
- [29] T.S.Kim, *Short-Term Longitudinal Effects of Maternal Self-Esteem, Coparenting and Warmth in Early Childhood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t School Entry*,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pp.91-96, 2020.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54593>
- [30] J.S. Lee, & E.J.Kim, The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s, and Pe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2, No.5, pp. 433-445, 2013.

유 경 훈(Kyoung-Hoon Lew)

[종신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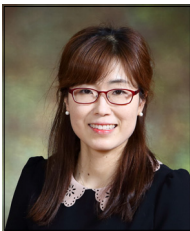
- 1992년 2월 : 성신여대 유아교육학과(문학사)
- 1995년 2월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문학석사)
- 2007년 2월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송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부교수

<관심분야>

아동발달, 창의성교육, 교육상담, 교육행정

정 미 애(Mi-Ae Jeong)

[정회원]



- 2011년 2월 : 송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교육학석사)
- 2021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09년 12월 ~ 현재 : 세종영재교육연구원 영재교육 강사
- 2019년 9월 ~ 현재 : 서정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 2021년 9월 ~ 현재 :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강사

<관심분야>

유아교사, 유아과학교육, 유아교육과정, 창의성교육